

# 주장자파라...

② 탄허 스님의 '예언'



조태호

선이란 무엇인가요? 범어로.. 생각하며 닦는대(思惟修) 고요히 생각한다(靜慮)는 것...

고로.. 참선은 부처님 마음자리... 견실심을 보자는 것...

어떤 마음까지? 윤택적으로 우려난 생각(육단심) 분별하는.. (연려심) 누구지 육단심?

망상을 내는 깊은 (집기심) 본성은.. (견실심) 접니다. 어제 냉면몇그릇 했더니 설사 생각... 허스나... 하... 가족파리...

상원사 수행적 에... 법당과 뜰에 죽은 개미떼가... 불길하다

나중에 어느스님이 어떤게 아셨소? 양의허허... 양은 한번성나면 뱀이 바껴도 밀어붙여

6.25 동족전을 예측... 1979년 생신기념

또 한번 재밌는 일... 63년 월남전 예언 미국이 잘거야

강연에서 예언 올 기미엔은 기미가... 박대통령 신정살로 음력8.9월 시해...

그런 예언은? 원맹은火 미국은金 火克金.. 불속애축아 그리고 같은 음(陰)으로 조화 어려워... 그만 물어 이사람아

탄허 스님(1913~1983): 전북 김제 生. 희익현 계통에서 한학을 수학. 오대산 월정사에서 한암 스님에게 득도. 조계종 초대 중앙역경원장. <화엄경> 등 번역서 다수.

선재동자의 구별여행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선지식은 보현보살이다. 보현보살도 문수보살처럼 특별한 자신의 법문을 설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의 법문을 통해서 보살행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서 어떻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도달하는 경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을 만나고 나서 삼천대천세계의 티끌 수 선지식을 찾아 보고 받들어 섬기며 부지런히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보현의 해탈경계를 관찰하였다. 그때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름, 행원(行願), 조도법(助道法), 지혜의 경계, 지혜의 위력 등에 대해서 듣고 보현보살을 뵈러 갈망하였다. 그리하여 선재동자는 모든 세계를 버리고 모든 애착을 여의려는 결심 없는 마음, 모든 지혜의 경계에 널리 들어가려는 청정한 마음, 모든 부처님 법 바다에 들어가려는 광대한 마음, 모든 중생세계를 교화하려는 넓은 마음, 모든 국토를 깨끗이 하려는 한량없는 마음, 모든 곁에 머무르려고 하는 끝없는 마음, 여래의 열 가지 힘에 나아가려는 구경의 마음을 일으켰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일으키니, 자기의 선근의 힘과 모든 여래께서 가피하시는 힘과 보현보살과 동일한 선근을 심는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청정하여 모든 여래가 정등각을 이룸을 보고, 나쁜 길이 없음을 보고,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이 청정함을 보는 등 열 가지 상서로운 모양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세계의 날날 티끌 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같은 부처님

권관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71>

## 보현보살의 법문(1)

### 열 가지 지혜 바라밀다 얻으니 시방세계 보현보살들이 인가

의 광명그물구름을 내어 두루 비침을 보고, 여러 부처님 형상의 마니구름을 내어 법계에 가득함을 보는 등 열 가지 광명한 모양을 보게 되었다. 진실하고 순수한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이처럼 여러 가지 상서롭고 광명한 모양을 보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 선재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이제 반드시 보현보살을 보고 선근을 더할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보고 여러 보살의 광대한 경지에 대하여 결정된 지혜를 내어 온갖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때 선재동자는 여러 감관을 거두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보려고 크게 정진하며 마음이 물러가지 아니하였고, 넓은 눈으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과 여러 보살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보현보살을 보려는 생각을 지었다. 지혜의 눈

로 보현의 도를 보니 마음이 광대해기가 허공과 같았고, 크게 가엾이 여겼기 견고해가 금강과 같았으며,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생각생각마다 보현의 행을 순종하여 닦아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여래의 경지에 들어 보현의 지위에 머무르려고 하였다.

드디어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이 금강장 보리도랑의 여래의 앞에 있는 보배연꽃 사자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상호는 참으로 뛰어나 세간에 짝할 이가 없고, 지혜의 경지도 한없이 크고 넓어서 헤아리고 생각하기 어려워져 삼세 부처님과 평등하였다. 그리고 보현보살의 몸에 있는 날날 털구멍에서 모든 세계의 티끌 수 광명구름, 향구름, 꽃구름, 중생의 몸구름, 보살의 몸구름, 법천의 몸구름 등을 내어서 모든 중생의 괴

로움과 근심을 멸하고, 여러 여래에게 모한 법문을 굴러도둑 권하며, 법계와 허공계에 두루 있는 교화 받을 중생을 따라서 모두 아늑다라삼삼보리심을 내게 하며, 모든 중생의 마음을 만족케 하고 온갖 지혜의 도를 갖추어 닦아 익히게 하는 등의 자유자재하고 신묘한 경계를 보았다.

선재동자는 보현보살의 이렇게 한량 없고 부사의한 큰 신통력을 보고 잠깐잠깐 동안에 모든 부처님 세계에 가득한 지혜바라밀다 · 모든 여래가 공양하는 지혜바라밀다 · 모든 부처님의 부사의한 큰 신통한 일을 아는 지혜바라밀다 등 열 가지 지혜바라밀다를 얻었다.

선재동자가 이렇게 열 가지 지혜바라밀다를 얻자,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그의 정수리를 만졌는데, 이때 선재동자는 일체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삼매문을 얻었다. 그리하여 날날 삼매에서 옛날에 보지 못하던 모든 세계의 티끌 수와 같은 부처님의 큰 바다를 보았고, 온갖 지혜의 도를 듣는 기구를 보았고, 온갖 지혜의 가장 묘한 법을 내었고, 온갖 지혜의 큰 서원을 세웠고, 큰 서원의 바다에 들어갔고, 온갖 지혜의 큰 정진을 일으켰고, 온갖 지혜의 깨끗한 광명을 얻을 수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바세계의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한 것처럼 시방세계의 날날 티끌 속에 있는 모든 세계의 모든 부처님 초소에 있는 보현보살도 모두 선재동자의 정수리를 만졌고, 얻은 법문도 또한 같았다. 이리하여 선재동자는 마침내 이 사바세계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의 보현보살들로부터 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 네티즌 교리문답

### 마음을 진흙소로 비유한 까닭은?

문 경허 선사의 선어록을 비롯해 많은 선어록에서 마음을 진흙소에 비유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냥 황소나 물소라고 해도 될텐데요. (D '중생부처')

답1: 진흙소라는 말은 허상을 일컫는 말이라고 본다. 진흙으로 만든 소는 겉으로는 소의 모습이지만 일대 인연의 화합으로 조성된 가상, 허상을 말하는 것이다. 진흙소가 비를 맞거나 물속에 빠지면 녹아 없어지게 되므로 진흙소는 허상을 지칭하는 상징적인 것이다. 즉 진흙소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인연을 따라서 생멸하는 허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진흙소가 쟁기질도 하고 싸움도 하고 여물도 먹으니 묘한 일이다. (D '보후')

답2: 진여본성인 청정심을 물로, 물속의 진흙을 번뇌와 망상으로 비유하면, 청정심에 번뇌의 바람이 일어 흙과 물과 바람 등의 모인인 진흙을 자기(소)로 알아, 쌓인 그것들이 마치 실제하는 자기로 전도된 망상을 한다. 그러나, 물이 잔잔해 지고(무명의 바람이 멈추고) 진흙이 가라앉으면 청정한 물속(지혜가 밝아진)에 자기라고 믿던 진흙소(아상)는 없어지고, 오직 청정한 밝음(혜)만 나타난다. 중생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D '무명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선의 세계 46

### 교외별전(敎外別傳) - 6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라고 했다. 여기에서 지어낸다는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규정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이렇듯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 우선 나쁜 면부터 살펴보자.

세상의 온갖 일과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저런 인식과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인식과 판단을 확실히 같이 옳다고 믿는다. 물론 인식과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새로운 인식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대상에 대한 자기의 인식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대상의 진상이 워낙 그러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고 이리저리하게 인식하고 판

단하는 내용은 그 대상의 진상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사물의 진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기실 우리의 그런 생각을 사물에다가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것을 일컬어 망상(妄想, 망념(妄念)이라고 한다.

왜 우리는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왜곡해서 지어내고 그 망상, 망념을 사물에다가 덮어씌우고는 바로 그것이 사물의 진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가? 아집(我執) 때문이라는 것이 불교의 진단이다. 아집은 이기적인 탐욕을 수반한다. 아집이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기본인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태도이다. '나'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있다고 여기고, 따라서 나와 나

아닌 것을 분별하는 구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태도이다. 그러한 '나'는 당연히 그 개체로서의 나를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지, 나 아닌 것들의 입장에서, 또는 세상 전체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개체로서의 나의 입장과 이익을 고집하고 추구하는 운동력이 거기에 서 일어나게 마련이다. 그것이 탐욕이다. 이기적(利己的)인, 즉 자기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추구하는 탐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집과 탐욕의 필터를 통하여 보고 인식하며 판단하기 때문에 사물의 진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고 지어낸다는 얘기이다. 마치 사진기 렌즈 앞에 색깔이 있는 필터를 끼우면 무엇을 찍더라도 그 색깔 채 색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무엇을 보든지, 아무리 이른바 객관적으로 본

### 아집·탐욕에 의해 사물의 진상 왜곡

### '본다'는 정신의 눈이 판단하는 것

다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아집과 탐욕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채색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왜곡되지 않은 진상 그대로의 사물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저 산이, 저 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이익이 되는가 하는 시각에 보이는 그런 모습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는 말인가? 내 눈이 아집과 탐욕으로 뒤덮여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저 산이 사실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라는 말인가? 그런 뜻은 아니다. 여기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 본다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말하자면 '나'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있다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기본인 무아(無我)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태도이다. '나'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독자적인 존재로 있다고 여기고, 따라서 나와 나

다. 본다는 것은 정신의 눈이 판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가 왜곡되지 않은 사물의 진상을 볼 때, 본다는 것이 불교의 진단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1	2	3	4	5	6
7			8		
11	12	9	10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정답은 26면에

## 상식퍼즐

### 가로

1. 地, 水, 火, 風을 통틀어 일컫는 말 5. 사바세계를 뜻한 역사적 7. 모든 세계를 뜻하는 말 8. 입골 부처님이 모두 공행으로 강조하신 내용으로 계속 전승되어 온 함축된 계목 9. 월요일 다음 요일 11. 전북익산에 춘분신을 두고 세운 불교 교파 13. 석적인 악어를 말아보는 신 14. 먹을 수 있는 알맹이 통칭 15. 우리 나라 고유의 정형시 16. 참고가 되는 책 19. 퇴계와 사단정론 논쟁을 벌였던 유학자 21. 불교에서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 존경, 공양받는 사람 23.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당우 24. 여름철 밤에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곤충, 개뿔벌레 26. 나라에서 관리하는 도로 27. 선종에 비해 경전을 중시하는 종파.

### 세로

1. 오전 아홉 시부터 열한 시를 십이시로 표현한 것 2. <화엄경>의 본존인 대방광(大方便)의 이치를 증득한 부처님 3. 지역화의 상대적 의미 4. 아이를 낳은 지 스무 하루째의 날, 세례 5. 교동방이 아니라려(사방)로 통한 6. 동력장치가 부착된 작업 도구 10. 고대로부터 전해오는 인도의 심신단련법 12.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교재 13. 기후가 건조한 시기 17. 사성제의 각 것 자를 따서 일컫는 말 18. 왕이 받든 아침과 저녁 식사 20. 대승의 교리를 근본으로 하는 불교 21. 밤이나 숲에 불을 때기 위해 만든 구멍 22. 우리나라 국토를 일컫는 말 23. 우방국의 반대말 25. 다른 종류.